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北, 독재 세습 불안정으로 탈북자 단속 강경



탈북자 또 복송 위기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탈북자 문제 북한과 중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행한 일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4-7)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대 권력 세습을 안착하는 과정에 탈북자 단속을 강경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복송위기에 처하면서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남조선 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한 인권문제를 극대화시켜 국제문제화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탈북자 복송에 대해서는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두둔했다.

최근 들어 강화된 북한의 탈북자 정책은 북한의 3대 세습의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말했다. 미국 북한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사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던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자, 수천 수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망명했습니다. 결과 동독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북한이 그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이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과

정에서 가장 부정적인 교훈만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국 국경이 헝가리처럼 열릴 경우, 수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을 타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 체제 시작부터 북한과 탈북자 문제 공조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2월 명젠주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만나 북중간 안보 공조를 약속했다. 또, 2010년부터 북한에 경찰장비를 대량 제공하면서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의 공안 요원들이 자국내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 주었다. 최근 한국 언론들은 수십 명의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공안과 함께 탈북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무너지면 대량 탈북 난민이 자국으로 넘어올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 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리다. 스칼라티우 총장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내다봤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예전보다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인권을 탄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독재 체제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이 군부강경파여서 인권탄압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출처:자유아시아방송).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이사야16:3-4)

북한 영혼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근심 중에 방황하며 살길을 찾아 헤매는 탈북자들을 주님 손으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견디다 못해 중국 땅으로 탈출하였으나 여전히 쫓겨나야 하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 있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들의 참된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기시며 도망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친히 피할 처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독재체제로 인권탄압이 더욱 강경해지는 북한의 단속과 대량 탈북 난민들이 넘어올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정책과 이해관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북한 영혼들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에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북한 영혼들이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케 하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기도24.365 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 중학 역사 교과서 종교편향 심각
"한국 교과서인지
이슬람 역사책인지 모르겠다"



▶ 인터뷰
- 유대인들의 회복을 소망하는
중국 목회자 조슈아 목사



김용의 선교사 컬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서 사단이 쳐놓은 그물로 인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결론삼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되심이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4:26~27)

아브라함도 다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으나 주님은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피하게, 아찔한 실수에는 친히 건져주셨습니다. 다 모르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붙들 어주셨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세상을 조정하는 세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해석자들, 사상, 철학, 과학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역사가 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로마의 황제, 일본의 천황, 태국의 왕 등은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고, 히틀러만 해도 자기가 이 세상을 통일해 보겠다는 기염을 토하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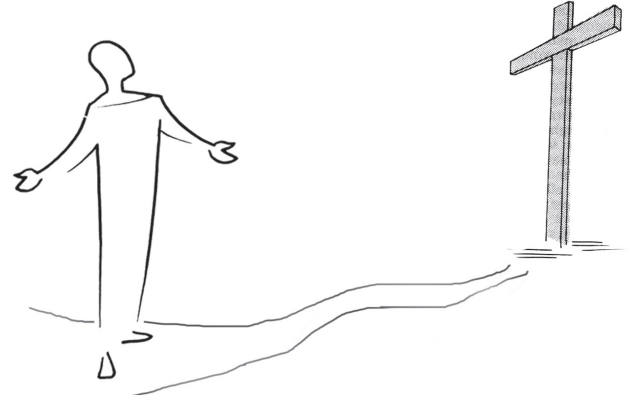
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역사의 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흑암에 종노릇하다가 절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의 운명을 주님이 보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은 끝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 안전한 의뢰, 가장 믿음만한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단이 공격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낙담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십시오. 사단의 승리처럼 보인 것은 아주 잠시뿐, 결국은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승리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 10:7)

모든 역사의 과정 안에 악이 득세하고 사단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실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인 십자가의 길로 더욱 걸어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늘 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단의 그물망, 사단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은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가장 완벽한 의뢰, 후



회할 것 없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길. 사단의 전략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의 갈 바를 다 알지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역사의 한복판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죄와 세속적 가치에서 떠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아의 감옥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는 죄에서, 돌이킴이 없고 회개의 촉구가 없는 부정하고 공허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과 입 맞추는 것입니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신바람나고 확실한 약속은 바로 어린양의 혼인기약입니다. 그분의 혼인기약에 참여하십시오. 신부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전쟁의 대열에 참여하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안전한 길이 아닌 가장 견고한 의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만을 사모하는 신부로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그분과 함께 기업을 취하는 자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겠는가?”

보헤미아/요한 후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오, 가장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시여!” 요한 후스는 처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였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어 죽음을 예비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육신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에 놓으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잔혹한 죽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굳은 믿음과 견고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시어 모든 인내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소서!”

요한 후스는 면죄부를 팔던 사제들에게 항의하고 성경의 표준을 따라 정의(正義)를 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15세기 교회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는 당초 왕실로부터 변호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지하 감옥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된 것이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옷이 벗겨진 채 화형대에 묶였다. 발아래 쌓인 장작에 불이 붙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이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 선포를 위함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르자 마지막 숨을 쉬며 외쳤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후스의 증거는 중세 교회의 면죄부 판매 악행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도!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적게 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기도가 맨 앞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호전적인 함성이 아니었으며 마지막 모습도 저항이 아니었다. 기도가 그들의 마지막 호흡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반대자들을 혼란에 빠트렸으며 다른 이들에게 단호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 역사(歷史)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그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때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쳐 복음에 주목하게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인생의 도가니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그 뜨거운 화염이 위로 솟구칠 때 당신은 기도하겠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통이 당신의 첫째이자 마지막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겠는가?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프리카가나, 볼가탕가 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 책상에 엎드려!’ 해외에서 온 손님들을 보고 왈칵떨어떨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호통 소리에 조용해졌다. 조약돌 같이 둥근 머리를 두 팔에 기대어 엎드린 아이들... 한 아이는 미처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곧 이어 “이제 고개를 들어요!”라고 외치는 선생님 소리에 머리를 들고 앞을 바라다 본다.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의 아이들의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보는 이의 입에 미소를 띄게 한다.

아프리카 가나의 북쪽 무슬림 지역으로 사금(砂金)이 나는 곳으로 알려진 볼가탕가의 한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곳은 금을 채취하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학교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다. 적어도 이곳에 오면 하루 한 끼 식사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월 비전트립팀이 방문했던 이곳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학교가 세워져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수백여 명의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43:1)

- 자료 제공 : WMM 복음선교관학교 ‘예수같이’ 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박영철 교수
(침례신학대학원장 역임)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믿음의 행위를 점검하라

이 글은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16일까지 진행된 다시복음안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한국 기독교 위기의 본질은 신앙과 삶의 분리됨에 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 복음주의가 제시해 온 복음 메시지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복음의 내용에 있으며, 둘째는 믿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 복음의 중심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였다.

초점을 흐리는 죄의 개념
왜곡된 죄의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초점을 맞춘다. 알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죄의 근원은 마귀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교만해 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였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마귀는 그래서 쫓겨났다. 그가 인간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아담에게 자신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죄다.

구세주와 주(主)님 개념의 이분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님 되는 그런 메카니즘은 없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도록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구세주와 주님을 함께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분리하는지. 성경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라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다. 십자가에서 그치지 말고 부활의 복음까지 나아가야 한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회개 과정의 축소 내지 약화

"Just say I am sorry(죄송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데 고백이 같은 고백으로 회개가 가능한가? 그렇다고 어릴 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미주알고주알 다 토해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죄다. 심지어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장아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전 존재의 무게가 실린 고백이어야 한다.

믿음의문제-영적의개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들이는 문제는 엄청난 사건이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다. 만난 지 10분 만에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영원을 바치는 문제인데 대중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부터인가 전도한 후에 곧바로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을 말한다.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후에는 정말 그 분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불순종한다면 영적 간음이다. 다시 이 진리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

“
초대교회 성도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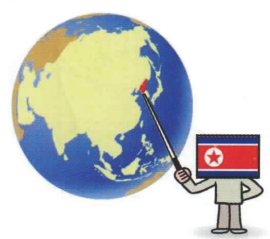
십자가에서 그치지 말고 부활의 복음까지 나아가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

1면에 이어 -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교회는 살아있다


North Korea



면적 12만km ² (1.2배)	인구 2천399만 (0.5배)
도시화 63.4%	종족 한국인 99.8% 중국인0.2%
종교 무종교 69.3% 종족종교 15.5%	기타 13.2% 기독교 1.48% 불교 0.4%

*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세계기도정보 2010〉



북한은 본래 한국 기독교 부흥의 발상지였으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평양대부흥. 다 아시죠?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3년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2002년 현재 식량난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난민이 줄을 잇고 있다.

깊어 죽는다...

남한 기독교인들은 몇 년간 이 나라가 복음에 문을 열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왔다. 이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주어, 북한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중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 남한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었다.

남조선에서 교회에 나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출처: 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선교브리핑

영국, 지방의회 "회의전 기도" 금지 판결

영국 지방의회에서 회의 전에 공식적으로 하는 기독교식 기도예 대해 법원이 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10일 종교적 특권에 반대하는 세속주의협회가 대본주의 비데퍼드 지방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을 통해 의회 청사 등 공공장소에서 회의 시작 전에 행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지방자치법상 합법적이지 않다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상원과 하원 등 중앙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 회의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번 판결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지방의회 공식 회의에서 기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일선 학교와 중앙의회에서 이뤄지는 회의나 행사 전 공식기도에 대한 금지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등법원 대변인은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유일한 곳"이라면서 "이는 아마도 영국이 주교 등 성직 귀족에게



상원 의원 자격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성공회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케리 상원 의원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기독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문화와 가치 시스템을 파괴하게 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에릭 피클스 지역사회 담당 장관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영국인들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영국은 성공회에 기반해 세워져 여왕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도는 오랜 문화적 유산"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국 지원받는 "종교단체 활동 제한"

중국, "정치·종교적 목적 기부금은 받지 말라"

중국 정부가 자국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을 선별해서 받도록 하는 등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발표, 중국 선교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난달 29일 국민일보가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달 27일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과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부처가 "종교단체가 자선 활동을 내세워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종교단체의 자선 활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종교적 조건이 붙은 해외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이나 여타 도움을 받지 말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종교단체의 순수한

자선 활동은 환영한다"며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내 중국 선교전문가들은 "이 내용은 중국이 기존에 강조해 오던 3자(自治·自傳·自養)교회 방침을 재강조하고 해외보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한 것에 비중을 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국 공안의 선교사 활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고 미신교 종교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등이 내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와 함께 해당 종교 단체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감독,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는 중국에서 간혹 정밀 조사를 받아 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획

중학 역사 교과서 종교편향 심각하다

중학교 학부모 “한국 교과서인지 이슬람 역사책인지 모르겠다”

교과부, “근대이전 역사는 종교적 특성 설명 가능, 근대이후는 종교관점 배제” 원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이슬람 경제와 문화 취급 제시, 기독교는 아무런 기준 없어

종교와 관련, 중학교 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이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축소와 부정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영향력을 발휘한 종교로 서술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12년 현재 국내 중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사(상) 교과서 5종(교학사, 대교,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육)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내용보다 이슬람에 관한 내용이 월등히 많다.

실제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한국사 영역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종교서술지침을 분석한 결과, 불교 천주교 유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독교 영역은 어떤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표>는 중2, 중3, 고1 역사교과서의 서술 기준을 분석한 자료이다.

기독교는 본문에서 소개조차하지않아

이같은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적게 다루진 현상은 세계사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교학사의 중학 역사(상) 교과서는 7단원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에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발전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에 관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페이지 238쪽에 ‘읽기자료’란 코너를 통해 ‘크리스트교가 성립하다’란 제목으로 몇 줄 정도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교학사는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을 통해 ‘읽기자료’는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너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당시 세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며, 오늘날 서양 문명의 바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밝히고 있는 기독교의 성립과 영향력은 이 설명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불교와 이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여러 단원에 걸쳐 이슬람세계의 형성 또는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슬람 세계의 등장 등의 제목으로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를 소개하고 있다.

교과부지침 이슬람역사와문화는 반드시 다룰 것

현재 교과부가 제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권 형성을 다루면서 이슬람의 경제와 문화를 취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상인이 지중해로부터 인도양, 남중국해를 잇는 동서 해양 무역에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이해시키고, 이슬람문화가 페르시아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수학, 천문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을 발달시키고 이슬람과학이 유럽의 근대과학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집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교학사의 역사(상) 교과서는 9장의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 단원에서도 이슬람세계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중세 이슬람의 역사를 소개하며, 탐구활동 등의 코너를 통해 중세 이슬람세계의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관용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지역을 소개하면서도 ‘동남아시아에 퍼지는 이슬람교’라는 제목을 다루는 등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이슬람 홍보물로 여겨질 정도로 이슬람에 대해 과도하게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펼쳐진 이슬람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기총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자체의 문제점에서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과서 집필지침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집필기준을 제시, 근대사회에 기여한 기독교의 역할이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사 이전은 종교적 특성을 설명해도 무방하지만, 근대사회를 설명할 때는 모든 종교를 편향 없이 서술하라고 못박음으로 근대사에 등장한 기독교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의 경우, 근대사회 이전인 고려시대를 불교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유교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대사회에 활동한 기독교적 관점은 전혀 소개할 수 없게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종교편향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독교학부모는 “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슬람의 역사교과서를 잘못 보고 있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근대화 과정, 6.25한국전쟁 등 시대마다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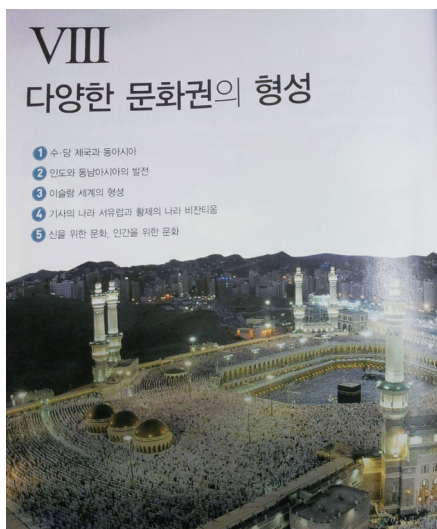


해당종교	장	단원	종교관련 서술 지침
	I. 우리나라의 역사	종교서술지침없음	
불교의 수용과 전파	II. 고대사회의 발전	8. 고대문화의 발전과 교류	삼국,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서술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등	III. 고려의 성립과 발전	8. 종교사상	불교가 고려의 정치이념이며, 후기에는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등장한 것을 기술. 이 시기에 도교, 풍수지리, 토속신앙도 공존하였음을 서술
유교, 불교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2. 유불교체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설명하나, 신앙으로서 불교를 용인하였음을 서술
천주교, 동학, 정감록 등	V. 조선사회의 변동	7. 사회의식의 성장과 농민봉기	조선사회의 붕괴과정에서 도참 예언사상, 천주교, 동학에 대해서 언급함
동학(천도교)	VI. 자주적 근대국가의 성립	5.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지향한 이상적인 사회사
종교일반		12. 근대사회와 문화	특정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서술할 것.
기독교	해당 항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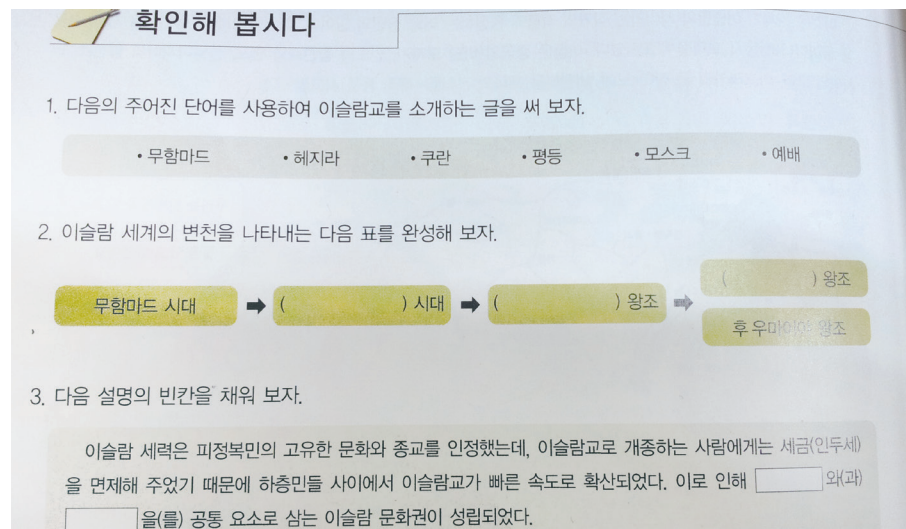
<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가르쳐져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물론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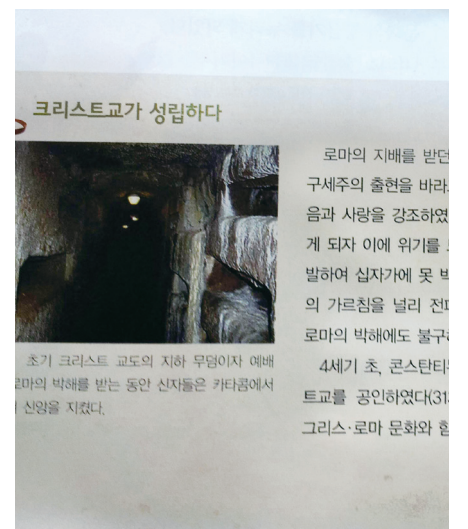
학을 하는 기독교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로 사용된 메카의 카바 신전 모습



이슬람 역사를 복습하는 단원에서 이슬람교를 직접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했다.



읽기 자료로 간단히 소개된 기독교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중국 예수가족공동체의 후손, 선교를 꿈꾸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소망하는 중국 목회자 조슈아 목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근 중국 대륙에서 만난 한 중국인 목회자 조슈아 목사는 그 명제(命題)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20세기 초반 중국 산둥성을 비롯 중국 대륙에서 조용한 부흥의 주역이었던 예수가족공동체 일원의 4대 손(孫)이기도한 그를 통해 선교중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본다.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이뤄졌다. 선교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한결음씩 순종하고 있는 중국의 신세대 목회자 조슈아(가명) 목사. 지인의 소개로 중국 서북지역 한 도시에서 최근 만났다.

모태신앙으로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가계를 대변하듯 깔끔한 용모의 조슈아 목사는 친절하고 또박또박하게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10대 후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20의 말씀이 실체가 된 이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다 20대 후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중국의 삼자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0년대 중반 그는 삼자교회의 목회자를 사임하고 가정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를 떠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왜 옮겼는지 물었다.

“주님이 제게 선교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자교회에서는 그 선교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선교를 떠날 수 있는 여건의 가정교회를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한국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대부분 30여명 미만의 소규모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는 등 자비량(自備糧)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18세 이상 중국인, 신앙의 자유 누릴 수 있어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더욱 궁금해졌다.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삼자교회를 떠나고, 가정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이런 행위와 함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국의 기독교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는 생경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제약은 없나요?” 질문했다. 통역을 하던 분이 자신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조슈아 목사의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 시간제약으로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중국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신앙의 자유를 갖습니다. 어떤 교회를 나가든 관계없습니다. 삼자교회를 가든 가정교회를 가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당황해하는 듯한 기자에게 부연설명이 덧붙여졌다. “대신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외국인이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말한다. 만약 가정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가정교회도 대형집회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선교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표면으로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침묵하며 모

르는 척 할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로잔대회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것은 그러한 단적인 사례이다.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중국 공안이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들이대며 사역을 제한하거나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추방을 명령한다는 것이다.

조슈아 목사는 믿음의 후손이다. 그의 고조부(高祖父)가 속해 있던 예수가족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복음 전파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중국내지선교회 소속으로 공산당에게 추방당하기까지 중국에서 의료선교사역을 감당한 보언 리즈는 ‘중국의 예수가족공동체 교회이야기’(2005, 부흥과개혁사, 원제는 The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를 통해 이렇게 회고했다.

“공동체의 성인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가족공동체이다.”

‘중동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라’...백투예루살렘의 비전

조슈아 목사에게 짧게 중국선교의 현황을 들려달라고 했다. 질문 자체가 방대하지만 열방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그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1918년경에 서남지역 난저우(蘭州: 간수성甘肅省的 성도省都)지방에서 출발한 서북영공단(西北靈工團)과 푸하이(福海)에서 시작된 편전복음단(編殿福音團) 모두 중동 이슬람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비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접하자는 것이죠. 이들 두 단체 모두 예수가족공동체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이같은 선교전략은 나중에 백투예루살렘운동으로 확장됐지요.” 이같은 선교중국의 모태에서 조슈아 목사는 믿음의 교제를 하며 기도모임을 갖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기도했다.

“그날 기도중 중 바울의 마음이 생각나더군요. 그토록 유대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으나, 그는 결국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의 수고로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 부담감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이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기다렸다. 선교사역을 위해 40일간 금식기도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과일 주스를 한 모금 마시다 위험한 고비를 겪기도 했다. 한참 대화 중 통역으로 돕던 분이 당시 몇차례

장기 금식의 경험이 있던 터에 당시 조슈아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해내고 재상봉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현장으로 떠나는 일이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는 않았다. 2007년. 그는 한 유대인을 만났다.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조슈아 목사는 히브리어를 배우기 원했다. 이를 계기로 서로 언어를 나누며 그는 기회가 닿는대로 복음을 전했다. 어느 날 유대인이 물었다.

“당신은 중국인인데, 왜 평범한 유대인인 예수를 믿나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집은 나사렛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는 아주 평범하지만 약간은 비범한 예언자일 뿐이었다. 그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가며 복음을 나눴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오역일 것이라고 했다. 조슈아 목사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줬다. 그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생각을 꺾지 않았다. 그저 예언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던 2010년 10월 무렵 꿈을 꾸고, 한 싱가포르 목사로부터 여권을 만들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22일간 금식하며 기도 했다.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회복을 꿈꾸며

실제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된 것은 그로부터 이듬해인 2011년 중순 무렵이었다. 당시 여권을 만들려면 3500위안(한화 약 70만원)이 필요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분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의 현금을 받게 돼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비자와 함께 이스라엘행 여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많은 동역자들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에서 교체했던 그 유대인을 만나 숙소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주님께 대해 냉정했다. 많은 유대인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조슈아 목사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을 올라 건너 다윗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호세아서의 말씀, 이 백성이 나를 버려도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구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땅에 재단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의 벽으로 가서, 히브리어로 기도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열방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주님 그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소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놓고 지난 1월에 아내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선교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래 일을 물어보고 구할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아 구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목사의 고백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시며”(사45:11)

문득 히브리어 11장 말씀이 떠올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조슈아 목사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바로 20세기 초반 중국 복음화에 큰 족적을 남긴 믿음의 세대 예수가족공동체가 일어나기를 꿈꿨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증거’일 것이다. 함께 했던 일행은 그가 선교중국의 차세대 주자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기대하며 함께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C.K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vs. 다수기독교인이 선택한 가정교회

삼자교회는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성립 이후 형성된 교회형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기에 중국 건설을 위하여 신(新)중국 수립을 위해 교회까지 포함한 제반 영역에서 연합운동을 펼치던 중 중국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가입한 교회를 ‘삼자교회’로 명명했다. 삼자는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 즉, 외국과의 관계를 끊어서 자치하고, 경제적으로 자양하고, 사상적으로도 자력전도한다는 뜻이다. 삼자교회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관변교회의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견해와 삼자교회 내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부자운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있는 중국기독교인중 삼자교회 소속된 성도는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60% 이상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삼자교회에 대해 ‘지도와 감독’,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단속과 탄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012 충신열방기도센터 느헤미야 컨퍼런스

“열방기도센터는 모든 교회의 비전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 곳곳에서 일어나 이기는 교회로...

열방기도센터 개원 2주년을 맞은 충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 목사)는 「2012 충신열방기도센터 느헤미야 컨퍼런스」를 열어 만 2년간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과 이 비전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비전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내용의 요약문이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기도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 안에 구하면 들어줄 것에 대한 확신 없이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주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

으로 주님께 구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자.

◇조완순 선교사(기도24365본부)=복음과 기도가 지역교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열방기도센터가 실재되는 일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은 증인을 세우는 것이다. 건물은 바뀔 수 있으나 지나온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 복음과 기도의 성벽은 누구도 허물 수 없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서자.

◇안선의 목사(대전성산감리교회 열방기도센터)=이전까지 늘 세상에 대해 방어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공격하



는 교회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얻은 축복은 이전에 기대했던 성도수의 증가나 문제해결이나 소원성취가 아니다. 기도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 현재 성산감리교회는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공동체이지만 열방기도센터를 지키는 기도자는 30명 정도다.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게 쉬는 날 없이 열방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회의 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따로 갖지 않고, 열방기도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음

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고 있다.

◇박종진 선교사(국제선교교회 담임)=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안에 먼저 십자가의 그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한 그날을 전제로 한다. 이같은 십자가 경험 없이는 결코 그날을 구할 수 없다. 시작을 하신 주님이 과정, 끝 모든 것에 주관자이기에 그분만 바라보자.

“모든 지역에 열방기도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참여, 패널토의
쉽없는 연속기도, 말씀기도와 연합의 힘

주제 강의와 발표 이후 열방기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지역교회와 1개의 선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패널토의로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교회의 본질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방기도센터가 세워진 영덕읍 교회의 김주원 목사는 100년이 넘는 만큼 긴 역사를 간직한 교회에서 30분조차 기도하기 힘들어하는데 과연 24시간의 기도가 이뤄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순종한 이후 7개의 지역 교회가 연합하고, 52일간 연속 연쇄 연합 기도가 이어진 모델을 제시해, 주님이 열방기도센터로 부르시고 굳건히 세우셨음을 고백했다.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는 2008년 느헤미야52기도부터 시작해 하루, 한 주, 그리고 52일간 연속기도를 한결음씩 순종해왔다. 이 교회의 열방기도센터를 섬기는 김기영 권사는 지난해 3월부터 52일 연속 느헤미야52기도가 끝나자마자 열방기도센터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열방기도센터로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기도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신감리교회의 열방기도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채선 사모는 사이판을 비롯해 중동 지역 등에서 순회기도팀으로 방문하고, 선교단체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 충신열방기

도센터가 가능한 이유를 말씀기도와 연합이라고 꼽았다.

2006년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열방기도센터로 명명하며 순종해온 순회선교단의 첫 열방기도센터 책임자를 역임한 유정덕 선교사는 열방기도센터의 식양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기도자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안산지역의 교회 느헤미야52기도를 섬기고 있는 이득진 목사(회복의동산교회)는 많은 시행착

오들이 있었지만, 처음 기약했던 1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오히려 느헤미야52기도가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참석자 중 2년째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최성영 목사(나무와씨앗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어떤 공간의 의미보다는 한 사람을 만민의 기도 하는 집으로 세우는 주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6~7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매달 한 주씩 느헤미야52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곧 21주 연속 기도로 나아가 한결음 더 순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주 목사(춘천 푸른언덕교회)는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고백되는 것이 늘 소망이었는데 여러 교회와 증인들의 고백 속에 모든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임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지역에 열방기도센터가 세워졌으면 하는 꿈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기도의 삶 | 충신감리교회 이선례 집사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만 밟고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비로소 나의 실체가 복음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처음 느헤미야52기도를 시작하면서 열방의 나라와 민족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선포 내키지 않았습다. 내 문제와 나의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한 번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겨우 기도에 참여하며 시작하였던 열방기도가 점점 매일 참여하는 수준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낮에 서 너 시간, 밤에 한 두 시간씩 날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진정한 중보자와 예배자를 찾으셨고 나의 전심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열방기도 센터에서의 말씀기도는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대로 시간시간 마다 실체가 되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늘 열방기도 한다고 나가는 내게, 남편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저 “다녀오겠습니다.”라며 미소 짓고 나오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열방기도센터에서 기도정보를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생각하니 감격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먹고 살만 한가봐, 맨날 열방기도만 하러 다니네’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께만 순종할길 원하셨습니다.

열방기도센터에서 기도한지 1년이 다 돼갈 때 쯤, 5년 전에 수술했던 머리 부분에 병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통곡했습니다. “주님, 또 수술을 해야 되나요?”라고 원망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검진을 받고 몇 달 동안은 TV를 보다가도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머리 수술은 얼굴 부분에 빠까지 잘라내야 하는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15시간이나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저를 환상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방기도센터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하나님께 한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술하고 깨어난 이후, 그때부터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열방기도센터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훈련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중보기도학교에 믿음으로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임참석부터 순회기도팀, 재정문제, 가족의 반대, 육체적 부담 등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중보기도학교를 가는 날이 아니면 열방기도센터에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다른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열방기도센터! 결단코 포기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여된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달려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이슬람 홍보물 보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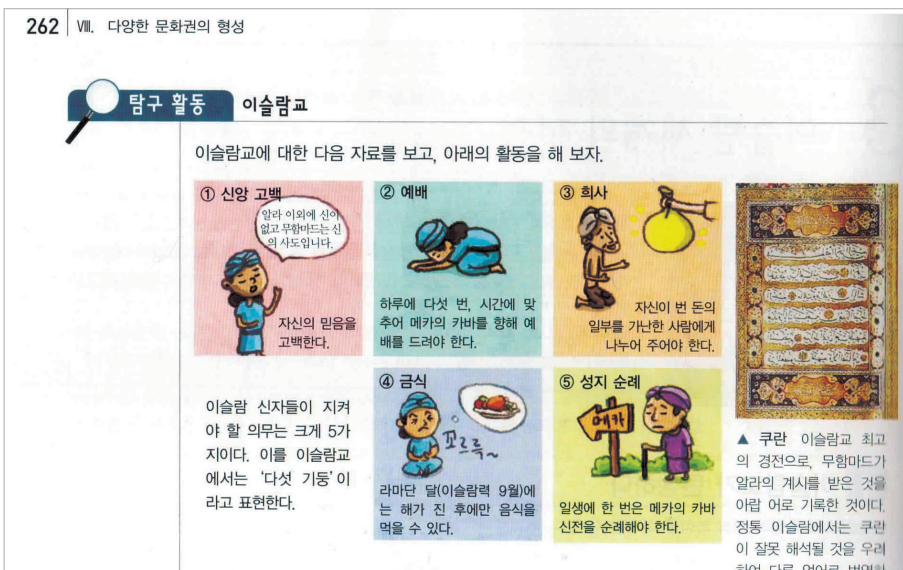
(주)교학사, 이슬람교리에 따른 활동을 탐구활동으로 제시

2012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이슬람의 교리에 따른 종교활동을 권유하는 등 이슬람 홍보물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학교 2학년이 사용하는 (주)교학사의 역사(상) 교과서가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기술해 심각한 종교편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이슬람의 교리에 따른 신앙고백, 예배 등 종교활동을 권유하는 듯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교과서는 8장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에서 이슬람세계를 소개하면서 탐구활동으로 '이슬람교에 대한 다음 자료를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라며 구체적으로 그림과 함께 이슬람 교리를 소개했다.

이 교과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 '무함마드, 헤지라, 쿠란, 평등, 모스크, 예배' 등의 단어를 나열한 뒤, 이를 통해 이슬람교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라고 유도했다. 이 문항을 풀려면, 각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또 이같은 학습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이슬람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독교에 대한 기술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다. 이슬람의 소개는 종교의 형성시기부터 중세시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반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중세 유럽 종교개혁 시기 이전 부분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의 부정적 모습과, 실패로 끝난 십자군 전쟁의 부정적 측면 등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가상 인터뷰를 통해 중세 시대 농민이 교회에 얼마나 예속 되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회자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김정주 목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슬람이 주는 좋은 영향을 찾도록 배려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이슬람의 표교활동을 위하여 기록한 홍보물 같다.”고 말했다.

느헤미야52기도 지원 "순회기도팀" 수시 모집



기도24365본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기도 지원군 순회기도팀을 수시 모집한다.

이미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도자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순회기도팀은 기도지원을 요청하는 교회에 2박 3일간(화~목요일)의 일정으로 파송되어 현장에서 연합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참가 자격은 순회선교단 훈련학교 수료 및 참가자 (복음선교관학교,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일 경우 1박 2일 합숙 이후 지원가능), 기도24365 기도자 중 느헤미야52기도 유경험자에 한하며 느헤미야 52기도에 참여했던 교회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도 있다. ☎ 문의 070-7417-7518, 010-5424-4641 (느헤미야52기도팀)

“열방기도센터는 모든 교회의 비전입니다”

충신감리교회, 열방기도센터 개관 2주년 컨퍼런스 주최 전국 곳곳에서 열방기도센터 설립 교회 등장

“24시간 365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는 모든 지역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4일(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충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목사)는 지난 2년간 열방을 위해 쉬지않고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 개원 2주년을 맞아, 열린 「2012 충신열방기도센터 느헤미야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철희 목사는 “2010년 1월 발대식을 가진 이후 불가능할 것 같은 쉬지 않는 기도의 연합이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감동을 지역 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 비전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와 간증, 패넌토의 등으로 진행돼 열방기도센터의 의의와 각 지역에서 실

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의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또 충신감리교회에서 직접 제작한

선언문과 결단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내가 바로 열방기도센터이며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통로로 서서 연합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영상으로 만나는 다시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출시

2011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3박 4일간 열린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실황이 DVD로 출시되었습니다. 15명의 강사진이 전한 17편의 주옥같은 복음과 기도의 메시지를 이제 가정,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동맹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한 이번 DVD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사모하는 복음기도동맹인들이 더욱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 Disk 1 : 다시복음앞에 전체 스케치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
- Disk 2 : 김용의 선교사 /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유병국 선교사 /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 Disk 3 : 권영조 목사 / 복음과 기도
유영기 교수 /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총체적 복음
- Disk 4 : 박보영 목사 /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유기성 목사 /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 Disk 5 : 송천호 목사 / 나는 복음에 빛났다
정재현 집사 /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간 정규만 장로의 가족복음사

- Disk 6 : 안경규 선교사 / 소유와 권위 그리고 연합
박영철 교수 / 다시 그 진리 앞으로
- Disk 7 : 김성로 목사 / 사명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최고의 능력
- Disk 8 : 송신호 목사 / 주와 함께 죽은 자의 삶
이동휘 목사 /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계자가 됩시다
- Disk 9 : 류용렬 교수 / 목숨 바칠 사명을 발견했는가?
유기성 목사 /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1세트 구입시 33,000원이며 택배비는 별도 2,5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집 Ver.5 출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 Ver.5(다섯번째) 기도정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은 기도24365 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입니다.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각 권 구입시 6,000원이며, 세트 구입시는 30,000원(각 권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9박 10일의 교회개척 전도여행을 마치고

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약 1년의 시간. 나의 믿음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언제부터인지 이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이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한 태도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헌신'이라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순종이요, 마지막 순종을 드렸다고 여기는 마음이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는 것은 전 재산에 부도를 맞은 것을 의미했다. 큰 위기의 순간에 9박 10일의 전도여행을 허락하셨다. 이 시간이 다시 믿음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 기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산3:4) 전도여행을 통해 주님은 믿음의 전쟁과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셨다. 내 편에서 이해되지 않고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할 것과 오직 기도로써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목적지인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말씀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마음이 높은 가버나움'에 갈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한 대학교 근처 교수마을을 방문해 전도를 시작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믿으려고 해야죠."라며 문을 닫는 아주머니. "이단 같이 굳이 전도하며 오해받을 필요 없어요. 삶으로 살아서 전도 해야죠"라는 한 크리스천 대학생의 이야기. '이런 척박한 땅에도 정말 복음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또 다른 가버나움이었던 어느 대기업의 반도체 단지에 도착했다.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쉽지 않았다.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와 배고픔, 거절당하고 냉대 받는 일에 대한 정서의 부정적 반응들이 영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마치 모든 것들로부터 내쳐짐을 받은 것 같은 정서가 계속해서 마음을 어렵게 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마12:29) 견고한 '나'라는 존재를 꺾어 강탈해 내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겠느냐며 어떤 지역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닌 내 안에 먼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혹독하게 느껴지는 추위와 배고픔을 동반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은 그만큼이나 지독하고 질긴 나를 꺾으시기 위한 주님의 완벽한 조치였다.

광야 한 복판에 내몰리니 나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다.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며 던

졌던 화려한 고백. 그러나 잠깐의 추위와 배고픔도 견디지 못해 하루에도 수 없이 '돌아가고 싶다.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왔다. 단 이들도 주를 위해 불편과 힘들음을 감수할 수 없는 지극히 약한 존재.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도 없는 나. 나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총체적인 한계에 부딪혀 그저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주님, 그토록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제게 없어요. 제 마음을 불들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것뿐이었다. 이런 내게 주님은 말씀 기도 시간을 통해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뿐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한 확실한 죽음 뒤에 더욱 확실한 부활을 기대하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나와 우리 '이기는 교회'(교회개척 전도 여행팀의 이름)의 전부였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성당을 방문했다. 그동안 만났던 몇몇 가톨릭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해 신부님께 묻고 답을 듣는 중, 우리는 스스로의 말에 걸려 심히 고민하는 한 영혼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한계 이상의 선은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 존재의 실체 앞에 서게 됐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계속된 고민의 답을 찾게 되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19:26) 지극히 무능력하고 나약한 '나'로서는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일을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적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충분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심령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안에서 총만한 생명력을 흘러 보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넘어지려 할 때 말씀으로 친히 붙드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이면, 복음과 기도로면 충분하다.

김성욱 선교사 (T&R미션커뮤니티)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s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안토니오 치세리의 <Ecce Homo>

안토니오 치세리는 스위스 출신 이탈리아 화가로 인상주의가 유행하던 19세기 말에도 성화를 그렸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성화의 관습에서 벗어나,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Ecce Homo>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빌라도의 연설을 주제로 한 것이다. 작품에서 빌라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팔을 벌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의 제스처에서, 그리고 군중을 향해 뛰어내릴 듯 구부린 뒷모습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몰려온 군중을 향한 빌라도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 불렸던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아내의 흉몽을 기억하며, 예수를 놓아 주고자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하나님뿐 아니라, 시저도 욕되게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빌라도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더 이상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된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했고, 성난 군중들이 '유대의 왕'이라 쓰여진 명패에 '자칭'이란 단어를 넣으라고 할 때도 끝까지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며 십



자가의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 치세리가 생생하게 그려낸 이 갈등의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재생된다.

우리는 때때로 빌라도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외압에 못 이겨, 소중한 신앙의 원칙들을 저버리곤 한다. 그리고는 손을 씻음으로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빌라도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며, 때문에 반드시 자리의 책

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시나.

(안토니오 치세리, <Ecce Homo>, 1891, oil on canvas)

글. 이상윤(미술평론가)

■ 후원자 명단

(2012년 2월 16일 ~ 2월 29일, 가나다 순)

개인

박경희 박인원 원정아 윤석주 정영훈
주유순 지병용 홍승표 무명x2

교회 및 단체

기쁜우리교회 나무와씨앗교회
대전성산감리교회 모현복음교회
선교하는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복음기도모임
예수전도단출판부 전주온누리교회
홍소아과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